

마니커 닭 박물관

- 목계지덕(木鷄之德)을 찾아 -

평가사업본부 고객홍보팀 과장 조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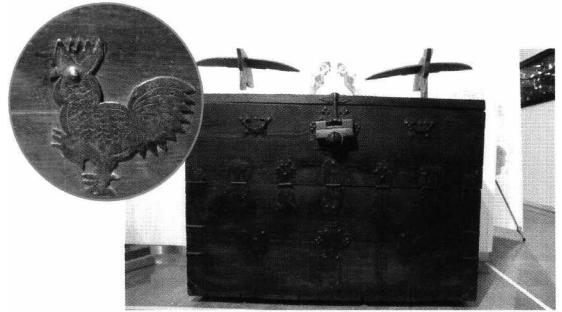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서 경기도 동두천시
로 이전한 국내 유일의「마니커 닭 박물관」(관장 방영석)
은 연면적 약459.8㎡의 넓은 공간에 닭과 관련된
여러 나라의 공예품과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용품 및
그림 등 약 4,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방영석 관장은 “현대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닭의 의미를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친숙함과 전
통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유용성을 보여주기 위해 닭
박물관이 만들어 졌다”면서 박물관을 직접 안내해 주
었다.

박물관 들어서니 1m가 넘는 목계(木鷄)가 마치 박물관
관을 지키듯 서 있었다. 교만과 조금함, 공격적인 눈
초리를 버리고 완전한 평정을 찾은 겸손한 모습을 한
장자(莊子)의 달생(達生)편에 나오는 목계였다.

가장 먼저 소개한「계관도(鷄冠圖)」와 함께 ‘닭의 다섯
가지 덕’을 알려주며, 옛 조상들은 딸을 낳으면 오동
나무를 심어 딸이 출가할 때 닭의 문양을 넣은 반닫
이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는 사위가 닭의 다섯 가지 덕
을 갖추길 바라는 친정아버지의 애뜻한 마음을 예들려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 밖에 닭은 임신출세
를 위해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의 방 벽에 그림으로,
정월 초하룻날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민가 대문
에 벽사의 의미로, 전통 혼례장에서는 자손번창 기원
하며, 여자아이 댕기의 예쁜 자수로도 우리네 일상
과 함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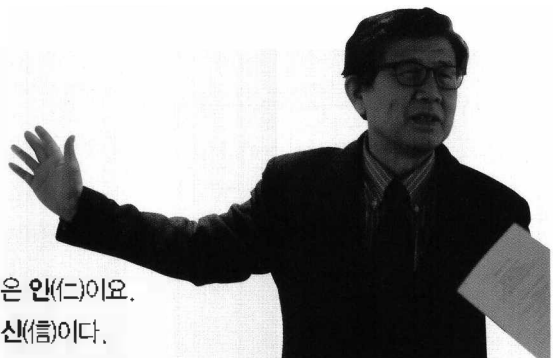


| 계관도 |



「닭의 다섯 가지 덕」

닭의 벼슬은 관을 쓴 것으로 문(文)이요,
발톱의 갈퀴는 무(武)이고,
적에 맞서서 감투하는 것은 용(勇)이요,
먹을 것을 보고 서로 꼭꼭 거려 부르는 것은 인(仁)이요,
밤을 지켜 때를 잃지 않고 새벽을 알리는 신(信)이다.



계관도를 설명하는 방영석 관장

다음 전시품을 보기 위해 모퉁이를 돌아서니 화려함과 소박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마치 고대 잉카문명이나 아프리카 유물인 듯한 나무조형의 「꼭두닭」이었다. '꼭두닭'은 말 그대로 '꼭대기에 올라앉은 닭'이라는 의미로 12지 중 유일하게 날개가 있어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극락왕생의 인도자로 망자를 지켜주는 동물로 여겨 전통 상어(喪興) 위에 얹었던 우리 선조들의 전통 문화 속의 살아 숨 쉬는 닭의 모습이었다. 어느 하나 똑같은 모습이 아닌 각양각색의 '꼭두닭'을 보고 있자니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예술 감각과 색감에 절로 감탄이 나왔다. 이 밖에 나라별, 용도별,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는 사실적인 공예품을

비롯하여 생활 속의 다양한 소품들을 관람한 후 박물관 한편에 마련된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 한잔으로 닭 박물관 탐방을 마무리하였다. 카페에서 발견한 센스 하나! 커피를 내 온쟁반에도 닭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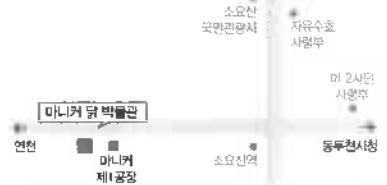


시 간 : 10:0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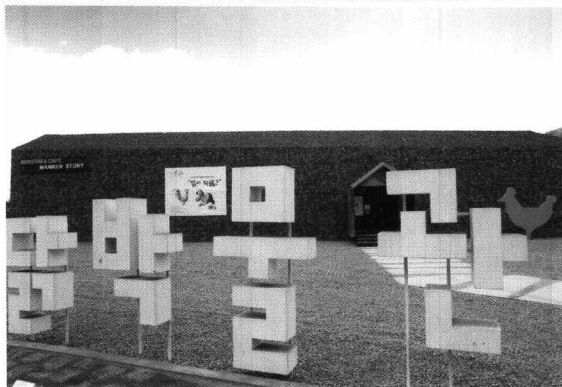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명절연휴

관람료 : 일반 4,000원, 어린이 2,000원

가는길 : 1호선 소요산역에서 39번, 53번 버스 환승(마니커 정류장 하차)



각양각색의 「꼭두닭」



닭박물관 외부전경



닭박물관 내부전경